
2020년 문화관광 분야 주요부처 업무계획과 광주전남 대응

2020. 3.

목 차

I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주요부처 업무 계획	3
1. 업무추진 여건 및 변화	3
2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정책비전 및 전략	5
3. 문화관광 분야 주요 정책 방향	6
II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광주전남 대응 방향	8
1. 문화예술 분야	8
2. 문화콘텐츠산업 분야	10
3. 관광 분야	12
4. 산림·정원 분야	14
5. 문화유산 분야	16

I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주요부처 업무 계획¹⁾

1. 업무추진 여건 및 변화

◆ 1인가구 확대, 고령화,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수요 증가²⁾ 및 힐링에 대한 욕구 확산³⁾

- 문화예술행사 관람률('19년 81.8%), 생활체육 참여율('19년 66.6%) 역대 최고, 1인당 평일 여가시간 증가('16년 3.1시간 → '19년 3.5시간, 12.9% △)
 -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광주 69.9%로 광역시 중 최하위, 전남은 63.1%로 전국 최하위
 -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('16년 5.3회 → '19년 6.3회, 1회 △)
 -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('16년 15.5% → '19년 12.7%, 2.8% 감)
 - 월 평균 여가비용('16년 136천원 → '19년 156천원, 14.7% △)
 - 연차휴가 사용률('17년 59.2% → '19년 72.5%, 13.3% △)
- 도서관·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('16년 2,595개소 → '19년 2,825개소),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('16년 22,622개소 → '19년 28,537개소) 증가
 - 문화기반시설은 광주 63개소로 2.2%, 전남 206개소 7.3% 차지
 - 공공체육시설은 광주 902개소로 3.2%, 전남 2,522개소로 8.8% 차지
- 산림에 대한 인식변화 : 산림(산림휴양, 산림치유 등)은 삶의 질을 높이는 대상
 - 숲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 75.7%(국립산림과학원, 2018년)
 - 도시숲·정원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필요성 증대
- 산림레포츠 산림관광 등은 경험소비 와 같은 새로운 여가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설 개선 필요
 - 휴양림('19년) 174개소, 숲속야영장('19년) 3개소
 - 기존 휴양림 내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보완(국립 41개소, 공립 72개소)

■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향유하려는 요구 증가⁴⁾

-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

1)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, 산림청 등의 2020년 업무계획을 재구성

2)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 재구성. 3~19p.

3) 2020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재구성. 3~18p.

4) 2020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재구성. 4~26p.

- 문화유산방문목적('18년 조사) : 여가(휴식) 54.2%, 역사체험 16.9%, 자녀교육 13.1%
- 궁궐 및 지역문화재 향유 관람객 증가('18년 1,506만명 → '19년 1,732만명)
-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290개소 중 문화재 야행 27개소(광주 동구 달빛걸음), 생생문화재사업 132건(목포, 여수 등), 향교·서원 활용 97개소(광주 월봉서원 등), 전통산사 활용 34개소(순천 송광사 등)
-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유산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미흡
 -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의 양적증대는 이루어졌으나, 지역별·사업별 특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질적 향상 미흡
- 5G 이동통신기술을 문화재와 접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하고자 하는 미디어 세대 요구 증가
 - 5G, AI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족
- 국제적 역할증대 및 세계유산 가치 공유·확산 요구⁵⁾
- 정부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문화유산 국제개발 협력(ODA) 확대 필요성 제기
 - 신남방정책(한-아세안 정상회담), 신북방정책(러시아몽골·중앙아시아 등 협력강화)
- 신규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체험 및 활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
 -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('19년 7월), 한국의 갯벌 등재신청('19년 1월)
 -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국내 유치(유네스코 총회 승인, '19년 11월)

5) 2020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재구성. 4~26p.

2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정책비전 및 전략⁶⁾

◆ 정책비전 및 방향

비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</p>
전략 · 주요 과제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3366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1. [풍요로운 문화경제]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</div> <div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② 방한 관광시장 확대 ③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</div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99333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2. [선도적 문화국가] 신한류로 국력(國力) 신장</div> <div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성장 견인 ②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 ③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</div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660066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3. [품격있는 국민의 삶]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</div> <div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민 문화활동 지원 ②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③ 생활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</div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CC663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4. [활기찬 문화·체육·관광]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</div> <div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문화예술 창작·유통 활성화 ② 문화·체육·관광 공정 환경 조성 ③ 예술인·체육인 안정적 활동 보장 </div>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3366; color: white; padding: 10px;"> ▲ 부 처 협 업 ▲ 국 민 체 감 ▲ 적 극 행 정 </div>	

6)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비전과 전략은 생략함.

3. 문화관광 분야 주요 정책 방향

■ 문화산업으로 경제 활력 제고⁷⁾

○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

- 콘텐츠 시장 지속 성장 전망, 5G 상용화 등으로 미래 콘텐츠 가능성 본격화
-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경쟁 심화

○ 방한 관광시장 확대

- 세계 관광시장 지속 성장(지난 10년간 평균 5%), 방문객 유치를 위한 역내 경쟁 심화
→ 맞춤형 유치 전개로 관광수요 흡수,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추진

■ 신한류로 국력이 신장하는 선도적 문화국가

○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성장 견인

-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확산 중이나 과도한 상업성·획일성 등 부정적 인식 요인 상존
- 한류를 문화, 예술, 체육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저변을 확장하고 시장별 차별화 전략으로 한류 지역 다양화

○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

- 정부간 협력, 수교 기념 등 주요 교류 계기 도래
※ 아시아문화주간(10월), 한-아세안 문화혁신포럼 정례 개최, 동아시아문화도시(순천)
- 상호 교류 등을 통한 문화공동체 기반 강화
※ 한국의 갯벌(7월), 연등회(12월) 및 DMZ 남북공동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

■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

○ 문화활동 친화적 여건 조성 및 잠재수요 진작

- 휴가문화개선 캠페인, 국민관광상품권 지원 등을 통한 여가 친화 분위기 조성
-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로 중장기 활성화 기반 마련

○ 문화체육관광 직접 경험 지원

- 학교예술강사 지원, 보육시설 찾아가는 문화놀이, 문화예술 융복합 직업체험 교육 등
- 고3 여행교육,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,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등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활성화

7)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 재구성. 3~19p.

○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

-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창출하는 문화도시 선정 지원
-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,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 지원

■ 활기찬 문화·체육·관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

○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

- 화랑 전속작가 창작지원금 지원 및 미술품 직거래장터 개설
- 도서관·작은서점·문학관 상주작가 파견, '2020 연극의 해'

○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

- <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> 조속 제정
-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, 체육단체 임직원 등 징계 수위 강화

○ 예술인·체육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

-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확대, 사회보험 지원 등
- <체육인복지법> 제정,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급여 인상 등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

II.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광주전남 대응 방향

1. 문화예술 분야

◆ 문화교류 및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

-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(순천, 양저우, 기타큐슈) 교류 행사 추진
 -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행사를 단발성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유지하여 지역 내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 필요
 - 2019년까지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현황과 지속 사례를 조사하여 순천시와 전라남도에도 맞는 전략 수립 필요
- 2020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대회 관련 전남 홍보 극대화 전략 수립
 - 2020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종목별 국제대회는 6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(부산), 10월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(강진) 등임.
 - 이를 계기로 전남의 문화·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 효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.
 - 국제경기대회는 경기력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개최·참가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.

◆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방향

- ‘문화도시’선정 지원을 통한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 육성·확산
 - 2019~2022년까지 총 30곳 내외 지정할 예정임. 도시별 최대 5년간 200억 지원 예정
 - 사업 내용이 비전수립, 도시간교류, 성과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‘문화도시’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움.
 - 따라서 ‘문화도시’선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함.

■ 시·군·구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복합화 추진

○ 문화·체육·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통한 시도민 생활여건 개선 기여

-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최소 1개소씩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수 제고

<표 1> 문체부의 주요 시설별 확충 목표

시설	2019년	2020년	전년대비
국민체육센터	676	836	+160
공공도서관	1,123	1,223	+100
작은도서관	6,530	6,563	+33
생활문화센터	190	351	+161

-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채용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부족한 운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◆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의 복지 지원 방향

■ 중앙정부의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<예술인 복지 증진 센터> 설립

-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문화재단 내 <예술인 복지 증진 센터>를 설립하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내 확산 촉진 필요
 - 현재 전북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예술인 복지 증진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수혜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.

■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대비 철저히 수혜율 상향

- 창작자금을 19년 166억원에서 20년 362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 내 목표치 상향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.
- 생활안정자금 용자 역시 19년 85억원에서 20년 1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최소 전년대비 2배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.
- 청년 예술인을 위한 '생애 첫 지원', '문화가 있는 날-청춘마이크' 운영 등으로 공연 기회가 제공될 예정인 만큼 지역에서도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준비 필요

■ 체육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필요

- <체육인복지법>제정과 연계하여 (가칭) <체육인 복지조례>의 조속한 제정 필요
 - (가칭) <체육인 복지조례>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
- 스포츠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하여 적극 홍보
 - 신설되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폭력·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·정지 강화와 관련하여 스포츠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 -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체육회 및 교육청, 그리고 지자체 체육과에서 체육인 대상 교육을 철저히 실시

2. 문화콘텐츠산업 분야

◆ 실감콘텐츠 성장기반 강화

■ 정부의‘모험투자펀드’,‘콘텐츠기업 특화보증’등 금융투자 적극 활용

- 2020년에‘모험투자펀드’를 8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임.
- 또한 완성보증과 가신보 보증 등 융자 대출도 1.6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지역 실감콘텐츠 기획개발, 콘텐츠 제작 초기단계 지원에 적극 활용 필요

■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활용한 지역 실감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

- 정부는 창업→육성→도약→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임.
- 특히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과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 확충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실감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게임, 첨단영상 장르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·지원사업 단계별 추진 고려 필요
- 무엇보다 공간 위주의 시설이 아닌 장비 구축, 관련 문화기술 개발,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실감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◆ 현장형 기획, 창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

■ 정부의 인재양성 사업에 부합하는 지역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

<2020년 문체부의 핵심인력 프로그램>

- (창의인재 동반사업) 청년창작자-전문가 밀착지도형(멘토) 교육('19년 400명→'20년 500여명)
- (연구개발 전문인력) 문화기술분야 석·박사 등 현장수요 기반 고급인재 양성(신규, 33억원)
- (게임·영화) 게임마이스터고 개교(72명), 게임인재원(130명), 영화아카데미 확대(57명) 등
- (방송·광고) K-글로벌 방송영상제작·유통교육(신규, 100명),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(160명)

- 실감콘텐츠 기획 및 창작을 위한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어 있지 않아 실감콘텐츠 기획 및 창작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필요
-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
- 지역에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견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공공기관, 지자체, 학계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현장 활용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

■ 장기 채용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병행

- 인력 고용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산업 인력양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측되는 교육 영역 등을 파악해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 채용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.

◆ 정부의 미래·신기술 육성 사업에 부응하는 지역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

■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(253억원) 적극 대응

- ICT 융합콘텐츠 발굴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비엔날레 연계
- 실감기술을 활용 지역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등 전통문화유산 실감콘텐츠화 사업 적극 추진

■ 장소 특정형 실감콘텐츠 적극 개발

- 2020년 '광화문' 일대 실감콘텐츠 집적화(신규, 400억원), 국립박물관·미술관 체험공간(총 10개소) 등 실감콘텐츠는 장소 특정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5.18 40주년을 기념하여 금남로 일대 실감콘텐츠를 직접화하거나, 광주비엔날레 등 전시시설의 체험공간에 실감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 고려 필요

■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제작 추진

- 한국전력 등과 연계한 가상훈련, 안전교육, 정비 등 VR, AR콘텐츠 공동 제작
-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연계 VR, AR기반 웹툰 등 제작

3. 관광 분야

◆ 문체부의 전략적 방한관광시장 확대정책과 연계하여, 지역관광 핵심거점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거점지대 구축

■ 지역특화 관광명소와 연계한 글로벌 국제관광거점 기반 구축

-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예술관광거점기반 구축 : 예향의 도시 상징랜드마크 조성, 도심 갤러리파크 및 오픈스튜디오 조성, 아시아예술정원 조성
- 남도음식의 글로벌 명품화 육성기반 구축 : 글로벌 명품화 R&D센터, 문화전당 연계 아시아푸드 Lab 설치, 지역특화 푸드스케이프 구축, 음식관광 산학연 지식클러스터 구축

■ 블루투어 기반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활성화

- 남해안의 천혜의 섬·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크루즈, 마리나, 항공투어 등 해양레저체험 국제해양복합 관광거점 조성 : 경도해양복합관광지구 조성, 요트마린 실크로드 활성화
-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해양웰니스치유 복합관광거점 조성 : 거점지역별 해양웰니스특화센터 조성, 해양치유어촌마을 육성, 산림·해양치유 R&D 클러스터 조성

■ 신한류문화에 기반한 지역특화 한류매력 관광명소 육성

- K-POP 등 지역연고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한류관광기반 구축 : K-POP 스타골목 조성, 아레나형 K-POP 전용공연장 조성, K-POP 복합문화광장 및 스타뮤지엄 조성
- 전통문화·현대예술 융합형 글로벌 한류체험관광 거점명소 육성 : 남도신한류복합문화테마파크, 아시아전통문화예술인촌, 신한류 K-아트컬처파크, 남도한류음식테마가든 조성

◆ 문체부의 강소관광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, 지역기반의 창조적 관광산업육성의 혁신생태계 구축

- 우수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성장사다리 구축
 -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: 혁신창업 아카데미 비즈쿨 운영, 산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, 창업컨설팅 멘토링자문단 운영, 지역관광 클라우드펀드 조성
 - 관광벤처 혁신창업 및 인큐베이팅 육성시스템 구축 : 산관학 해커톤-코워킹 플랫폼 구축, 유망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성장단계별·분야별 IP R&D의 전략적 지원
- 관광기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
 - 지속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혁신환경 조성 지원 : 관광기업 혁신지원센터 운영, 지식공유형 혁신네트워크 포럼 운영, 지속성장의 경상보조재정 지원
 -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: 단계별 안정적 보육지원 가이드라인 수립(창업단계, 정착단계, 성장단계), 보육기업의 스케일업 지원
- 지역기반 특화관광과 연계한 관광산업 고용창출 활성화 지원
 - 지역특화 관광일자리와 연계한 고용창출기반 구축 : 신규아이템 연계 관광일자리 창작소 운영,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산관학 아카데미 운영
 - 토탈케어 관광일자리 허브플랫폼 구축 : 관광일자리뱅크 운영, 진로상담·취업설계 등 수요자 맞춤형 구직컨설팅 제공, 구직자 역량강화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운영

◆ 문체부의 주력관광 육성정책과 연계하여,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미래관광 지역성장동력 육성

- 다기능·다목적 융복합형 글로벌 MICE산업 육성기반 구축
 -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 추진 : 복합지구의 기능적·공간적 외연 확대,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, 도심권 MICE융합 관광상품 개발, 관광·MICE 전담기구 출범
 - 전남 MICE 인프라기반 확충 :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,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 유치, 지역특화 유니크메뉴의 MICE 핫플레이스화 조성

- 비교우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토탈힐링 의료·웰니스관광 육성
 - 메디컬 뷰티케어 등 지역특화 원스톱 의료관광기반 구축 : 경쟁우위 의료자원을 활용한 데스티네이션 토탈케어시스템 구축, 뷰티·스파힐링 특화지구, 로가닉 메디푸드 테라피
 - 지역특화 비교우위 치유자원을 활용한 남도 웰니스힐링관광 육성 : 해양라이프케어상품, 산림기반형 산림테라피 숲건강치유상품, 해양심층수 활용 해양치유클러스터 조성
- 신해양 블루투어시대, 크루즈, 요트·마린 등 해양레저 체험관광기반 구축
 - 크루즈 해양투어 인프라기반 구축 : 기항지 전용부두(목포) 및 크루즈 전용터미널(여수) 건설, 동북아 국제 크루즈노선 및 국제 크루즈선사 유치, 내수면 연안크루즈 활성화
 - 남해안 요트·마린 실크로드 활성화 : 마리나 항만 전용거점 확충, 해양레포츠 메가이벤트 개최, 요트·마린 연관산업 클러스터 조성, 럭셔리 요트관광 SIT 융합상품 개발

4. 산림·정원문화 분야

- 정원산업의 육성
 - 다양한 유형의 정원 사업을 추진하여, 산림청의 도시숲, 생활정원 조성에 대응
 -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용지는 물론 정주환경, 인공지반, 가로 공간, 숲 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.
 - 정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 모색
 - 다양한 유형의 정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원용 식물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
 - 정원인력 양성, 화훼, 원예 분야의 육성 등 정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.
- 산림녹지 인프라(Green Infra) 구축
 - 그린 인프라는 산림청의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제5차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이므로 도시계획, 지역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이 되어야 함.
 -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녹지 확보, 미세먼지 등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,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유지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
 - 초고령화의 사회여건을 감안한 산림, 녹지공간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산림

자원의 휴양 등 소극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경제림, 경관림 등을 육성하여 경제소득 및 관광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여야 함.

■ 전남도,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육성

- 전남도는 산림청의 2020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대상으로 선정(2019년 10월)되어 ‘청정 전남, 블루 이코노미’비전 실현을 위한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‘블루바이오’분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.
-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조성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
 - 3년간(2020~2022년) 추진, 총 200억 투입(국비 130억, 도비 70억원)
 -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건립(100억)
 - 최첨단 양묘, 종자기술센터 건립(50억)
 - 해남과 완도 2개소에 6ha 규모의 양묘생산단지 조성(50억)
- 관련사업 추진 시 인재육성과 더불어 기술, 시설 등과 연계한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함.

■ 권역별 국가수목원 확충과 보호수 관리 강화

-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 준공(2020년), 국립새만금수목원(2026년 준공예정) 기본설계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구상 중에 있음.
 - 전남 완도, 국립난대수목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 용역(2020년 10월 완성)을 진행 중, 마지막 기재부 예산반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됨.
- 지역 내 보호수 관리를 위해 기존 조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,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을 구축해야 하며,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■ 「산림자원법」 전면 개정(2020년 8월 국회제출)

- 경제림단지(234만 ha)와 임업진흥권역(118만 ha) 통합·조정 검토
- 산림사업 대행·위탁기준 정비, 산림경영의 중요성 강조, 기능별 산림관리 방안 구체화 등
- 이와 관련한 지역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

5. 문화유산 분야

■ 새로운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모색

○ 전남종가 유산 조사 및 활용방안 도출

-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신규 프로그램“고택·종갓집 활용 프로그램 신설”(39개소)과 연계하여, 2018년까지 조사된 60여개의 전남 종가 중 활용 가능한 고택 및 종갓집을 발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○ 광주광역시 소재의 종가도 추가로 조사하여 광주전남 종가유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‘한국 종가유산’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시 우리 지역 내 종가유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.

○ 문화재청,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를 확대 지정 : 진도군

- 전승자 처우개선, 전승 인프라 확충, 전승자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 힘써야 함.

■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과 신규 자원의 등재 추진

○ ‘한국의 서원’세계유산 등재(‘19년 7월)에 나아가‘한국의 갯벌’등재신청(‘19년 1월)

- 문화재청,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된‘한국의 서원’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 선정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육성 예정

; ‘한국의 서원별 둘레길’조성(29억원) 계획(장성 필암서원 계획 반영 필요)

- ‘한국의 서원’뿐만 아니라, 기 등재된 전남의 세계유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육성할 예정이므로,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함.

- ‘한국의 갯벌’등재신청(‘19년 1월) 및 등재 결정(‘20년 7월,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)
; 서천 갯벌(충남 서천군), 고창 갯벌(전북 고창군), 신안 갯벌(전남 신안군), 보성-순천 갯벌(전남 보성군, 순천시) 등 4곳에 해당

※ 전남의 갯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정 시기 전후로 세계문화유산 기념 홍보 및 가치 제고 사업을 준비하여 추진 필요

※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시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이행 로드맵을 시행하고 ‘가고 싶은 섬’과 연계하는 방향 필요

- 호남 3대 정원을 비롯한 누정 및 별서정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(장기과제 반영)

○ 강진 청자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

- 2020년 3월 18일, 강진군·해남군·부안군은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, 등재 명칭도“한국의 고려청자 요지”로 수정하였음.
- 3개 군은 2020년 10월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, 2022년 세계유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

■ 영산강유역 마한고대문화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

○ 문화재청,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
- 시대별·문화권별 조사·연구 및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, 정비·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 예)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마한, 탐라문화권 등

○ 전남도, 「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」 수립(’17년 12월)하는 등 정부의 가야문화권 관심에 상응하는 마한문화권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

- 2018년 4월, 「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 조례」 제정
-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, 2018년 12월 “신(新)영산강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”수립
- 현 전남도, 국제학술대회 개최, 조사 연구서 발간, 마한유적의 국가사적 승격 추진중